

경영교육을 넘어 후계낙농인 소통 기회가 된 2박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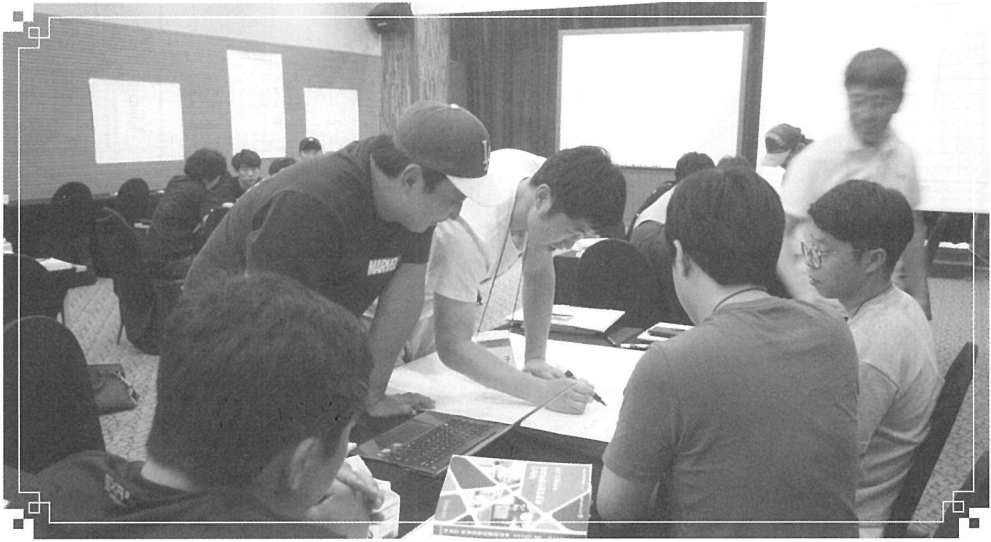


강 동 구

경북 김천 서부목장

1984년, 필자가 5살일 때 아버지께서 마당에서 젓소를 기르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2~3마리를 그냥 마당에서 기르시다가 그해 동네를 떠나 산속으로 젓소를 몰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지금 아버지와 내가 젓소를 기르고 있는 목장 터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께서 목장일을 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명절과 공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나는 절대 목장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다 2012년 아버지의 허리수술과 손가락 부상으로 어머니께서 혼자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 웬지 두 분이서 목장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에 목장승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어릴 때부터 목장일을 하지 않고 몰랐다면 결정이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목장일을 알기에 과연 내가 평생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나를 고민하게 했다. 그래도 부모님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힘들게 이루어 놓은 사업을 한순간에 버리기는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낙농업을 나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조금씩 배우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첫해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주말이나 방학 때 도와드리면서 접했던 일과는 그 강도가 너무나도 달랐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낙농인으로 변해가



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만 하던 몸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왜?'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목장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교육이 있는 곳은 항상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을 알게 되었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동생이랑 함께 차를 타고 교육장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폭염으로 하루도 농장을 비우지 못하고 더위로 힘들어하던 젖소들을 돌보다가 2박3일 교육을 가게 되어서인지 걱정과 함께 휴가를 가는 듯한 약간의 설렘도 있었다. 교육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교육생들이 도착해있었다. 점심을 먹은 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다.

첫 시간은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님의 강의였다. 현재 우리 낙농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시간이었다. 미국, 유럽, 뉴질랜드, 호주,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첫째로,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존재하기는 하나 매년 무관세쿼터가 증가해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둘째, 일본의 경우 수입유제품으로 인해 국내 유제품시장에 위기가 왔을 경우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약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와의 FTA에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가격적으로 승부가 안 되는 치즈, 버터는 앞으로 세계적인



로 유제품이 모자라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무관세로 계속해서 매년 더 많은 양이 수입될 것이란 사실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다.

이어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이 시작됐다. 2박3일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할 에그리텍이엔씨 나현채 대표님이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생각한다. “유사비가 무엇인가요?”

사실 많은 교육을 다녀 보면 대부분 교육은 오전 착유가 끝난 10시부터 오후 2시나 3시까지가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 안에 강사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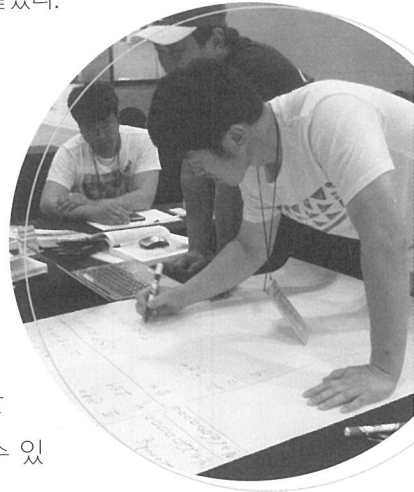
이 전달하고 싶은 것이 많다보니 학생들에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다 들어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게 되고, 학생들은 점점 잠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2박3일 교육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강사님의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만나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사비, 생산비, 수익률, 평균유량, 유방염, 사료섭취량 등 우리 낙농인들이 만나면 항상 나오는 주제들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지역마다 또는 농장마다 모두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다 보니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두 일치시키는 것도 어쩌면 농장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쉬는 동안 교재를 한번 넘겨보았다. 교재에는 정말 많은 경영관련 용어와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이거 정말 힘들겠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강사님은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의 좌석은 이미 모둠별 배치가 되어있었고 조편성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교재 보다는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별활동 위주로 진행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각 조별로 가상의 농장을 만들고 경영을 해서 생산비를 계산해 보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2014년부터 매달 기록해 오던 농장경영일지가 있어서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우리 조는 2,000kg 쿼터에 공장TMR 위주의 사양관리로 농장을 만들어봤다. 막상 해보니 백지상태에서 농장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였다. 토지, 쿼터, 축사, 착유장, 냉각기, 트랙터, 경산우, 후보우 등 준비할 것도 많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준비자금만으로 약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감가상각까지 염두에 둘 때 과연 20억을 투자해서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내야 해볼 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여기 모인 교육생들은 모두 흔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말하는 흠수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 은수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첫째 날 수업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여기저기 서로 어색했던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낙농업이란 공통점으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형님, 동생이란 호칭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이나 여자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주말을 즐길 나이임에도 주말이나 휴가도 없이 매일 매일 부모님과 반복되는 삶에 지쳐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교육은 대전이라는 대도시, 그리고 호텔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20대~30대 동료들과의 만남을 선물해준 고마운 경험이 될 것 같았다.

둘째 날, 본격적으로 어제 조별로 만든 농장을 경영해보기 시작했다. 막상 목장을 운영해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다. 착유우 사료비, 건유우 사료비, 후보우 사료비, 의료비, 인건비, 정액, 전기세, 유지보수, 감가상각비, 예비금,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 경영자의 경영방식에 따라서 각 조별 생산비의 차이가 많이 생겼다. 모두들 현장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후계낙농인이었지만 실제 생산비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와는 거리가 있었다. 우리 낙농업 현실을 생각하자면 통계청 생산비보다는 적게 나오게 경영을 해야지 해외 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FTA는 이루어졌고 앞으로 수입 유제품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생산비 감소와 우수한 품질의 원유생산으로 K-MILK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의 경영기록과 분석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목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교육에서 배우게 되었다. 또한 이런 전국단위 교육에 많은 낙농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 하루 빨리 한지봉 세가족을 탈피해서 생산자가 집유주체가 되어 유업체나 유통업체에게 이끌려 다니는 현실을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